

##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

A Longitudinal Study o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이은혜(Un Hai Rhee)<sup>1)</sup>

이정림(Jeong Rim Lee)<sup>2)</sup>

김명순(Myoung Soon Kim)<sup>3)</sup>

전혜정(Hey Jung Jun)<sup>4)</su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language abilities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in terms of both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were 176 children aged 5 to 7 and their mothers. They participated in follow up studies over the next 3 years. The children were tested using 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s and language tests; and classroom teachers rated their levels of both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Mothers reported parent-child relationships,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economic resources.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direct effects of language abilities,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depression up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It was also revealed that language abilities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 본 연구는 삼성복지재단의 2006~2008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의 자료 일부를 사용함.

<sup>1)</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sup>2)</sup>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sup>3)</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up>4)</sup>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eong Rim Le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F Anguk BLDG, 175-87 Anguk-dong, Jongno-gu, Seoul 110-734, Korea  
E-mail : leettu@kicce.re.kr

school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학업수행(academic performance),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 저소득 가정 아동(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비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빈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미곤·양시현·최현수, 2006). 특히 1997년 IMF 이후 소득 간 격차가 점차 벌어지므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200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계비 제공의 기초보장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 조차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 인구가 무려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여유진·이현주·김미곤·강신욱·김계연, 2004). 비수급 빈곤층은 비슷한 경제적 여건에서 법정저소득 가구에 비해 여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하고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률 역시 최근 IMF 시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아동빈곤률이 13.4%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 11.2%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다(김미숙·조애정·배화옥·최현수·홍미·김효진, 2007). 한편 저소득 가정에는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김미숙 외, 2007), 이로 인해 사회적 기회 창출이 어렵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경험함으로써 빈곤의 영향은 아동에게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이후의 학교생활이나

인지, 사회적 발달에 기초를 이룰 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성민선·이상오·정무성·정은, 1998). 저소득 아동의 경우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 적응(안병철, 2007)이나 사회·정서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희경, 2001;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저소득 가정이 경험하는 빈곤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가족의 스트레스 모형(Conger & Elder, 1994; McLoyd, 1990)에 기초하고 있다. 이 모형은 빈곤이 아동의 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련의 매개변인들을 통해 재정적 자원의 부족과 아동의 적응을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매개변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가족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모의 정신건강 악화나 가족 갈등 심화,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수준의 저하를 통해 아동의 적응을 악화시킨다고 한다(Mistry, Lowe, Benner, & Chien, 2008).

아동의 적응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은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에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나은숙·정익중·이봉주·김예성·김광혁, 2006).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초등 4, 5, 6학년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진이(2009)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압박감은 부모 역할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홍순혜와 이숙영(2009)의 연구에서도 빈곤가족의 아동방임과 양육자-아동 간 부정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적응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선경과 이재연(1998)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가 아동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민하영과 권기남(2004)도 부모의 양육 행동이 지지적일 때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송신영과 박성연(200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낮은 복지감이 부정적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택하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역동성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관계 자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를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일 때 아동의 심리 사회적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승연경, 2003; 정유미·김득성, 1998)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과 높은 관련성(장영애·박정희, 2008)이 있다는 보고 등이 있을 뿐이다.

한편 가족 위험 요인 중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변인은 부모의 정신건강, 즉 우울, 분노, 아동학대, 물질남용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빈곤으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부모의 우울로 나타나며, 이러한 부모의 우울이 아동의 부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소현·김영희, 2000; 황혜원, 2004; Davies & Dumenci, 1999; Downey & Coyne, 1990). 김진이(2009)의 연구에서도 일반아동에 비해 저소득 아동의 적응은 부모의 우울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위험요소

라고 하였다.

우울한 어머니의 아동들은 사회 및 학업적응에서의 어려움, 우울, 불안 등 내면화 문제행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행동장애 등의 외현화 문제 행동과 같은 진단들을 더 많이 받는다(문경주·오경자, 1995). 또한 우울증 부모를 둔 아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의 결함과 학업 능력에서도 부진하며(Downey & Coyne, 1990), 우울증 부모 중 68%가 부모 역할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Miller, Birnbaum, & Durbin, 199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적 복지 수혜자 아동을 둔 저임금의 모자가 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ackson, Brooks-Gunn, Huang과 Glassman(2000)의 연구에서도 위와 유사한 영향 관계를 밝혔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머니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우울은 양육의 질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양육의 질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낮은 수준의 학교준비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아동의 문제행동은 물론 취학전 아동의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능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더 통제적이고 처벌적으로 대하게 되며, 이러한 부모의 긴장과 불안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부적응행동을 유발시키게 될 수 있다(김순규, 2006; 박현선, 1998;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는 아동의 적응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등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또는 어머니의 우울 같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족의 위험요소가 아동의 학업능력이나 적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체로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제한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 그들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초기의 학업수행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기도 하나, 학업성취의 기초이며 두 변인이 측정 내용에서 구분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때 간접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언어발달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현이(2005)는 만 4-5세 14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그림어휘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두 연령 모두에서 저소득 가정 유아의 그림어휘력 점수가 일반아동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 하였다. 읽기 이해력은 이후의 학업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읽기이해력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일반아동의 읽기이해력과 관련한 Haden, Reese과 Fivush(1996)의 연구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인쇄물 지식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이해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아동의 읽기이해력 발달에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저소득 가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부진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명순·박찬화, 2008).

저소득 아동의 경제적 자원 부족은 흔히 언어능력의 결여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언어능력이 저소득 아동의 적응이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들에 기초하여 위의 모형에 아동의 언어능력을 추가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Forget-Dubois, Dionne, Lemelin, Pérusse, Tremblay, & Boivin, 2009; Walker, Greenwood, Hart, & Carta,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유아의 부모가 지각하는 재정적 자원이 저소득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과 학업수행에 미치는 직, 간접 경로를 종단적으로 밝혀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머니의 우울 및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과 함께 아동의 언어능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저소득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수준은 어떠한가? 1년간의 변화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저소득 아동의 부모가 지각하는 재정적 자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자원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도에 처음 선정된 후 2차년도(2007)와 3차년도(2008)에 추적이 가능했던 아동 176명과 그들의 부모이다. 연구 대상의 1차년도 선발기준은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삼성어린이집 7개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11개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1, 2, 3층에 속하는 만 3세~5세 아동 334명과 그들의 부모로서 삼성어린이집에서는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을 2년 이상 실시하고 있었다.

연구의 2차년도(2007)에 지역 여건과 저소득 아동의 비율을 고려해 4개 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7개 시설(서울 3, 대전 2, 부산과 전주 각각 1)에서 191명을 추적하였으며, 3차년도까지 7개 시설별로 연구 대상을 추적하였다.

연구대상의 3차년도 추적률은 본래 소속 어린이집에 따라 86%에서 100%였으며, 전체적으로 2차년도 아동의 92%가 3차년도에 추적되어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의 3차년도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연구 1차년도에 만 3세였던 유아는 총 7개 기관에 재원하고 있었으나 2008년에 만 5세 아동이 되었을 때 총 18개 기관에 흩어져서 재원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로 진학한 아동의 경우 총 48개 초등학교에 속하였고, 1학년의 경우 47개 학급, 2학년의 경우 48개 학급에 산재하여 소속되어 있었다.

연구대상 아동 176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연구대상 가족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5, 6, 7세 비율이 유사하나 7세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성별 구성은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176)

| 구분     | 빈도 (%)           |
|--------|------------------|
| 연령(학급) | 5세 57 (32.4)     |
|        | 6세 56 (31.8)     |
|        | 7세 63 (35.8)     |
| 성      | 남아 84 (47.7)     |
|        | 여아 92 (52.3)     |
| 경제적 수준 | 1층(면제) 33 (18.7) |
|        | 2층 95 (54.0)     |
|        | 3층 48 (27.3)     |

전체적으로 여아가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 아동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2층이 가장 많은 54%를 나타내고 3층, 1층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연구대상 가족의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학력에서 고졸(46%)이 가장 많고, 75%가 취업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직, 기능직(22.7%)의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 학력(58.5%)이 가장 많고, 38.6%가 취업하고 있으며, 판매 서비스직 비율(15.3%)이 다른 직종보다 높은 편이다.

가계 월 평균 수입은 대상의 약 73%가 25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수입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체로 저소득 가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2. 측정 변인과 도구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3년간 종단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은 1차년도에 측정한 변인과 함께 2차년도 이후 초등학교 적응과 언어의 읽기이해 변인이 추가되었다.

3차년도 아동 발달 변인으로는 지능, 언어능력, 초등학교 적응이, 부모 변인으로는 우울감과

&lt;표 2&gt;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N=176)

| 구분        | 아버지            | 어머니        |
|-----------|----------------|------------|
|           | 빈도 (%)         | 빈도 (%)     |
| 학 력       | 초등학교 졸업        | 3 ( 1.7)   |
|           | 중학교 졸업         | 13 ( 7.4)  |
|           | 고등학교 졸업        | 103 (58.5) |
|           |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  | 37 (21.0)  |
|           | 대학원 졸업 이상      | 2 ( 1.1)   |
|           | 무응답            | 18 (10.2)  |
| 취 업       | 예              | 68 (38.6)  |
|           | 아니오            | 96 (54.5)  |
|           | 무응답            | 12 ( 6.8)  |
| 직 업       | 기능, 단순, 노무직    | 14 ( 8.0)  |
|           | 판매, 서비스직       | 27 (15.3)  |
|           | 사무직            | 16 ( 9.1)  |
|           |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 7 ( 4.0)   |
|           | 무응답            | 112 (63.6) |
| 동거여부      | 예              | 161 (91.5) |
|           | 아니오            | 3 ( 1.6)   |
|           | 무응답            | 12 ( 6.8)  |
| 가계 월평균 수입 | 100만원 미만       | 33 (18.8)  |
|           | 100만원~150만원 미만 | 48 (27.3)  |
|           | 150만원~200만원 미만 | 33 (18.8)  |
|           | 200만원~250만원 미만 | 15 ( 8.5)  |
|           | 250만원~300만원 미만 | 4 ( 2.3)   |
|           | 300만원~350만원 미만 | 4 ( 2.3)   |
|           | 350만원~400만원 미만 | 1 ( .6)    |
|           | 400만원 이상       | 3 ( 1.7)   |
| 무응답       | 35 (19.9)      |            |

함께 부모-자녀 관계, 가족의 자원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관련된 측정 변인과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지능

지능은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웨슬러 지능 검사의 2종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3세에서 7세 아동에게는 박혜원·곽금주·박광배(2002)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를 실시하였고, 만 7세 3개월 16일 이

상의 아동에게는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III)를 실시하였다. 지능검사는 훈련된 검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50분~60분 정도였다. 검사 결과 언어성 IQ, 동작성 IQ, 전체 IQ가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언어성 IQ를 사용하였다.

#### 2)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그림어휘력 검사와 이해력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아동에게 전체적으

로 실시된 「그림어휘력 검사」(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 : PPVT-R)는 아동의 어휘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검사대상은 2세부터 8세 11개월까지의 아동이다. 이 검사는 Duncan과 Dun(1981)에 의해 개발되었고 김영태·장혜성·임선숙과 배현정(1995)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표준화한 개별검사이다.

「읽기이해력 검사」는 김동일(2000)이 표준화한 BASA(Basic Academic Skill Assessment)의 ‘문장이해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이해를 측정하는 집단용 검사로 총 23문항을 3분 동안 실시한다. 아동이 문장을 읽으면서 보기 3개 중 문맥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과제로서 옳게 선택한 문항수가 아동의 원점수가 되고, 이는 T점수로 환산된다. 본 검사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9로 산출되었다.

### 3)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 후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평가용으로 「학교생활적응척도」와 「학업수행평가척도」가 실시되었으며, 2차년도에 예비조사를 거쳐 개발되었다.

학교적응에 관련된 척도의 문항은 김선영과 안선희(2006)의 초기학교 적응척도와 Pianta, Steinberg과 Rollings(1995)의 교사와의 관계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교사용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또래관계(6문항), 학교선호/기피(7문항), 교사와 관계(7문항)의 20문항으로 교사가 1(전혀 아니다)~ 3(확실히 그렇다)의 3단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 Cronbach  $\alpha$ 는 .78, .85, .78이며 전체 척도의  $\alpha$ 는 .92로 본 연구에서 산출되었다.

「학업수행평가척도」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1학기 국어와 수학과목의 주요 단원 내용

에 기초하여 5단계로 9문항을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고, 전반적 수행평가 문항을 1개 추가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단원에 기초한 평가 내용은 1, 2학년에 공통적으로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 듣고 이해하는 능력, 수세기, 덧셈, 뺄셈 능력이 들어가고 추가로 1학년은 비교, 분류 능력, 2학년은 길이재기, 곱하기 능력이 각각 포함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학업수행평가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1학년의 경우 국어(4문항) .90, 수학(5문항) .97, 전체척도 .97이며, 2학년의 경우 국어(4문항) .92, 수학(5문항) .96, 전체척도 .97로 산출되었다.

### 4)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Gerard(1994)에 의해 작성된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ventory : PCRI)에 기초하여 1차년도에 예비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척도를 개발하였고, 3차년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되었다. 하위 영역은 훈육의 어려움(5문항), 부모참여(6문항), 부모 역할만족(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Cronbach  $\alpha$ 는 각각 .88, .73, .84로, 전체 Cronbach  $\alpha$ 는 .90으로 산출되었다. 본 척도는 5단계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점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긍정적 특성을 나타낸다. 즉 자녀 훈육에 어려움이 적고, 자녀활동에 참여도가 높으며,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 5) 부모의 우울감

부모의 우울감은 12 문항으로 구성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D)의 수정판을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5단계 척도로 된 12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는 .94로

<표 3> 연차별 측정 변인과 관련도구

| 변인과 측정도구      |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
|               | 아동       | 교사 | 부모 | 아동   | 교사 | 부모 | 아동   | 교사 | 부모 |
| 지능검사(K-WPPSI) | √        |    |    | √    |    |    | √    |    |    |
| (K-WISC-III)  |          |    |    |      |    |    | √    |    |    |
| 언어 능력         | 그림어휘력 검사 | √  |    | √    |    |    | √    |    |    |
|               | 읽기이해력 검사 |    |    | √    |    |    | √    |    |    |
| 학교 적응         | 학교생활적응   |    |    |      | √  |    |      | √  |    |
|               | 학업수행평가   |    |    |      | √  |    |      | √  |    |
| 가족자원          |          |    | √  |      |    | √  |      | √  |    |
| 부모 정신 건강      | 우울감      |    | √  |      |    | √  |      | √  |    |
| 부모-자녀 관계척도    |          |    | √  |      |    | √  |      | √  |    |

나타났다.

### 6) 가족자원

가족 자원은 McCubbin과 Comeau(1987)의 가족자원관리 척도(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Scale : FIRM)를 토대로 김오남(1998)이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오남이 작성한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차년도에 예비조사를 거쳐 5단계 척도 1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건강성(6문항), 도구적·정서적 지원(6문항), 재정적 자원(5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자원 영역( $\alpha=.86$ )의 점수만 사용하였다.

다음에는 본 연구의 1차, 2차, 3차년도에 실시된 측정도구 중 본 연구에 관련된 도구를 자료의 세 가지 원천, 즉 아동 검사, 교사에게 의뢰, 부모 보고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 3. 연구 절차와 분석

본 연구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효과에 대한 종단

적 연구(이은혜·김명순·전혜정·이정림, 2008)의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추적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선정된 변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설정하고 검증한 것이다.

전반적인 자료수집의 절차는 연구자들의 대상 시설 방문과 아동의 선정 또는 추적(2, 3차년도), 측정도구의 선정 및 검토, 검사자(연차별로 22명~29명) 훈련, 검사자들에 의한 각 시설 및 학교 방문과 아동, 부모, 교사로부터 자료 수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첫째, 표준화 검사를 제외한 모든 척도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로 재확인하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초등학교 1(2차년도), 2학년(3차년도) 학교적응 점수와 학업수행 점수에 대해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련된 이론적 모형에 선정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상호상관 계수( $r$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3차년도에 측정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1차년도의 가족자원, 2차년도의 부모 우울감과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3차년도의 언어능력을 투입하여 모형 검증을 하였다. 설정된 이론적 모형의 분석은 AMOS 5.0을 통해 각각의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적합도 지수를  $\chi^2$ , TLI, CFI, RMSEA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에서  $\chi^2$ 와 RMSEA의 값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TLI,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결과

#### 1. 저소득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수준 및 변화

연구의 1차년도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었던 만 3, 4, 5세 아동중에서 만 5세 집단은 2차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3차년도에는 2학년이 되었다. 만 7세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학교적응 영역별 수준에 관하여 교사들의 보고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적응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는 학업수행에 관한 교사들의 평가도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와 2학년이었을 때의 학교적응 총점 및 하위 영역별 점수, 즉 또래관계, 학교선호/기피, 교사관계에서 평균점수와  $t$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아동의 학교적응 총점, 또래관계, 학교선호/기피, 교사관계 점수는 3점 척도에서 2.26~2.54점 사이로 중간보다 높은 수

<표 4> 아동의 학교적응 점수 평균과 차의 검증 (N=54)

| 구분      | 1학년<br>M(SD) | 2학년<br>M(SD) | t     |
|---------|--------------|--------------|-------|
| 총점      | 2.37(.48)    | 2.43(.36)    | -1.08 |
| 또래관계    | 2.26(.55)    | 2.28(.42)    | -.21  |
| 학교선호/기피 | 2.43(.52)    | 2.54(.43)    | -1.73 |
| 교사관계    | 2.39(.50)    | 2.45(.39)    | -.90  |

준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다녔던 저소득 유아들이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다음 1학년 때의 점수와 2학년 때의 학교적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총점 및 하위 영역 점수에서 평균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2학년 교사들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1학년 때와 큰 차이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와 2학년이었을 때 교사가 평가한 학업수행 점수와  $t$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평가한 학업수행 점수는 총점과 언어능력, 수 능력 영역별로 5점 척도에서 3.61~3.90점 사이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아동들의 초등학교 학업수행 정도는 대체로 중간 위치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아동의 학업수행 점수 평균과 차의 검증 (N=54)

| 구분   | 1학년<br>M(SD) | 2학년<br>M(SD) | t     |
|------|--------------|--------------|-------|
| 총점   | 3.77( .92)   | 3.61( .96)   | 1.70  |
| 언어능력 | 3.65(1.01)   | 3.58( .95)   | .71   |
| 수 능력 | 3.90( .87)   | 3.65(1.04)   | 2.35* |

\* $p<.05$

한편 학업수행 점수의 평균을 학년 변화에 따라 비교해 보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수 능력( $t=3.65, p<.05$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교사가 평가한 저소득 아동들의 학업수행 점수는 1학년 때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수 능력 면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검증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 검증에 앞서, 이 두 변인과 모형에 투입된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관계( $r$ )를 다음의 <표 6>에 제시하였다.

3차년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예측되는 3차년도 아동의 언어능력, 2차년도의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 우울감, 그리고 1차년도 가족의 재정적 자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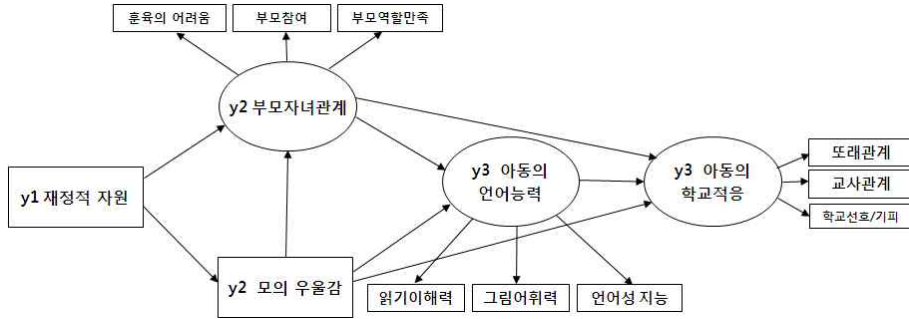
먼저,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표 6> 모형에 관련된 측정변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

(N=176)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1차년도 재정적 자원        | 1       |         |         |         |       |        |        |        |        |        |        |        |    |
| 2. 2차년도 훈육의 어려움       | .22**   | 1       |         |         |       |        |        |        |        |        |        |        |    |
| 3. 2차년도 부모참여          | .33***  | .51***  | 1       |         |       |        |        |        |        |        |        |        |    |
| 4. 2차년도 부모역할 만족       | .28***  | .53***  | .57***  | 1       |       |        |        |        |        |        |        |        |    |
| 5. 2차년도 모의 우울감        | -.29*** | -.38*** | -.32*** | -.44*** | 1     |        |        |        |        |        |        |        |    |
| 6. 3차년도 그림 어휘력        | .11     | .21**   | .12     | .14     | -.03  | 1      |        |        |        |        |        |        |    |
| 7. 3차년도 읽기 이해력        | .17     | .19*    | .14     | .19*    | -.03  | .58*** | 1      |        |        |        |        |        |    |
| 8. 3차년도 언어성 지능        | .13     | .13     | .13     | .16*    | -.07  | .56*** | .52*** | 1      |        |        |        |        |    |
| 9. 3차년도 학교적응_또래관계     | .18     | .21*    | .27**   | .23*    | -.19* | .26**  | .19*   | .28**  | 1      |        |        |        |    |
| 10. 3차년도 학교적응_학교선호/기피 | .12     | .15     | .21*    | .13     | -.11  | .28**  | .33*** | .33*** | .68*** | 1      |        |        |    |
| 11. 3차년도 학교적응_교사관계    | .15     | .17     | .21*    | .13     | -.19* | .18*   | .24*   | .32*** | .68*** | .71*** | 1      |        |    |
| 12. 3차년도 학업수행_언어능력    | .27*    | .30*    | .33*    | .25     | -.21  | .67*** | .64*** | .54*** | .64*** | .71*** | .59*** | 1      |    |
| 13. 3차년도 학업수행_수 능력    | .41**   | .16     | .28*    | .13     | -.21  | .65*** | .60*** | .51*** | .49*** | .66*** | .49*** | .82*** | 1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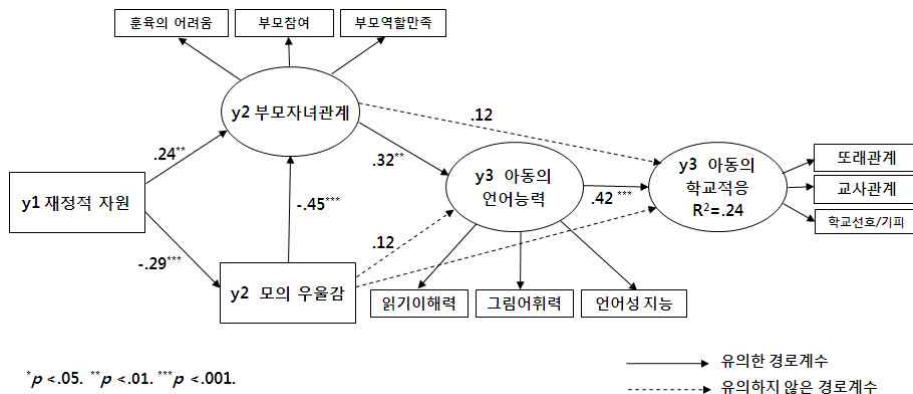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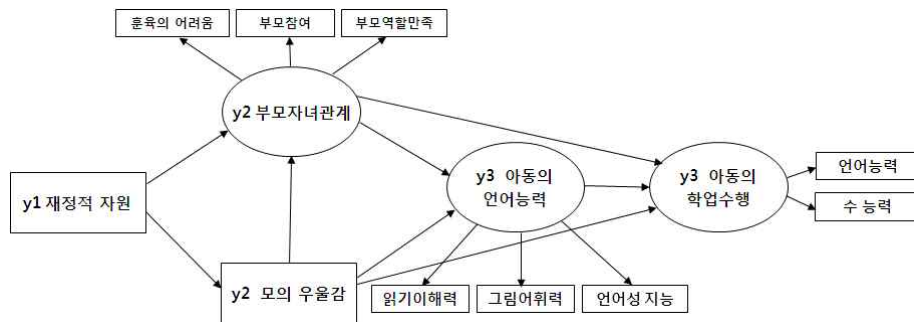
을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의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이론변인 중 가족의 재정적 자원과 어머니의 우울감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으로 이용되어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언어능력, 학교적응 변인에 관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이 그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TLI 와 CFI는 1에 가깝고 RMSEA는 0으로서 매우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 개의 이론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1>에서 제시했던 이론적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검토된 이론 모형에 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와 같은 적합도 지수는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RMSEA도 0에 가깝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나타난 변인 간의 경로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언어능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계는 언어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재정적 자원과 어머니의 우울감은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언어



<그림 2> 학교적응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그림 3> 학업수행에 대한 이론 모형

능력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 ( $Z=2.18, p<.05$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교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3. 학업수행에 대한 이론 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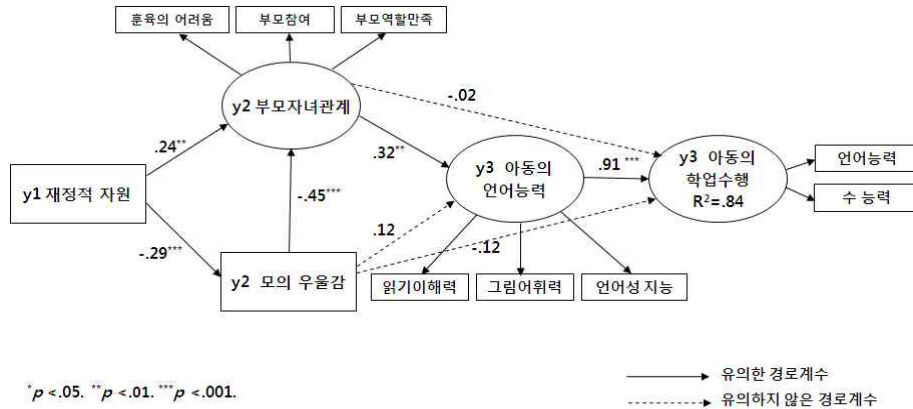
3차년도의 아동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예측되는 3차년도 아동의 언어능력, 2차년도의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 우울감과 1차년도의 가족의 재정적 자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의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이론변인 중 가족의 재정적 자원과 어머니의 우울감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으로 이용되어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변인인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언어능력, 아동의 학업수행 변인에

관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이 그 잠재변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는 1에 가깝고 RMSEA는 0으로서 매우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세 이론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그림 3>에서 설정한 이론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먼저, 검토된 이론 모형에 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와 같은 적합도 지수는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RMSEA도 0에 가깝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나타난 변인들 간의 경로를 아래의 <그림 4>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학업수행은 언어능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 관해서 살펴보면, 언어능력은 아동의 학업수행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은 높았다.



<그림 4> 학업수행에 대한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다음으로 아동의 학업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의 간접경로로서 가정의 재정적 자원은 어머니의 우울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감은 부모-자녀관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 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가정의 재정적인 자원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이 커지고, 어머니의 우울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아지며, 이러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향상된 언어능력이 학업수행능력을 증진시킨다 하겠다.

두 번째의 간접적인 경로는 가정의 재정적 자원이 부모-자녀관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가정의 재정적 자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형성이 되고,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증진되며, 이러한 증진된 언어능력은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 발달을 매개로 학업수행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 $Z=2.49$ ,  $p<.05$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업수행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수행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을 최종 내생변인으로 한 두 종류의 이론 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저소득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 2학년에서의 적응수준은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선호/기피 면에서 대체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으며, 학업수행 능력에서도 언어와 수 능력이 학급의 중간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변화는 총점에서 두 영역 모

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수 능력에서만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중 대다수가 저소득 유아를 위한 삼성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의 서비스(이은혜 외, 2008)를 계속 받아온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을 최종 내생변인으로 설정한 두 가지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두 아동의 언어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언어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외생 변인들은 아동의 언어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정의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부모가 지각할수록 부모-자녀관계는 좋지 않았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학교적응을 잘 못하고 학업수행능력을 부진하게 만들었다.

한편, 아동의 언어능력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더 발달되었고,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과 어머니의 우울감이었다. 즉 빈곤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자녀관계는 부정적이었고, 어머니의 우울 정도도 높았으며,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초래된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결국 아동의 낮은 언어능력점수와 연계되었다.

이들 모형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은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통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

동의 언어능력은 아동의 학업수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수행을 최종내생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은 매개변인과 내생변인 모두에서 측정되었다. 매개변인에서 사용된 아동의 언어능력은 순전히 아동의 언어능력을 파악하고자 사용된 표준화된 객관적인 검사의 형태로 측정된 점수이고, 내생변인에서 사용된 아동의 언어능력은 아동의 학업수행을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두 과목(언어, 수)를 선정하여 담임교사가 아동의 언어 성취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후자의 언어능력은 언어능력 자체를 알아보기 위함이기 보다는 학업성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얻어진 대표적인 점수 중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 모형을 통해서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수행을 포함한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발달이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 가정의 부족한 언어적 경험이 아동의 후기 학업수행에 지속적인 영향 미친다는 Walker, Greenwood, Hart, 그리고 Carta(1994)의 연구 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의 언어능력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정 아동이 영유아 시기일 때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국외의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 종단연구인 Perry Preschool Project(PPP), Abecedarian Project(ABC), Chicago Longitudinal Study(CLS) 등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개인, 정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PPP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 집단이 7, 14세 때 통

제집단에 비해 지능과 언어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덜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았으며, 40세가 되었을 때 채용율과 임금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범죄로 인한 수감률이 통제집단의 반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Schweinhart, Montie, Xiang, Barnett, Belfield, & Nores, 2005). ABC, CLS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도 PPP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종단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비용편익(cost benefit) 분석 결과 조기의 1달러 투자가 이후의 17.1달러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나 어머니의 우울감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능력을 조장시킬 필요가 있고, 아동의 언어능력을 조장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감소시켜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시에는 어머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아동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수행 저조와 같은 부정적인 발달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들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Baydar, Reid, & Webster-Stratton, 2003).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볼 때 어머니 정신건강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빈곤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정신건강 악화와 같은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모형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언어능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나 학교적응이나 학업수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질높은 부모-자녀관계가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좋은 언어적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서 두 변인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의 질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낮은 수준의 학습준비도를 초래한다는 Jackson, Brooks-Gunn, Huang과 Glassman(2000)의 연구와 국내 선행 연구들(김순규, 2006; 민하영·권기남, 2004; 박현선, 1998; 송신영·박성연, 2008)과는 일치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아동의 언어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학교적응이나 학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지만 아동의 언어능력이라는 강력한 매개변인의 효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의 질을 양육태도 대신 부모-자녀관계로 모형을 설정하여 검토해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의 관련성을 가정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개념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구

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관계 척도는 부모가 됨으로써의 생기는 역할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인식하는 정도에 관하여 측정하는 '부모역할 만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식과 상호작용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부모참여', 그리고 부모가 자녀 훈육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훈육의 어려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모양육행동이나 태도의 개념을 포함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주로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관계를 본 측면이 있지만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 둘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 모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라는 구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위한 개입에 관해 전망해보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영유아 시기의 언어능력을 조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영유아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인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모의 정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보급·실시가 요구된다.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들이 초기 학교적응에 실패할 경우, 이후 청소년 시기까지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기개입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1). 빈곤가족의 학령기 아동발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동일(2000).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계 읽기검사요강**. 서울 : 학지사.
- 김명순·박찬화(2008).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부진아를 위한 읽기중재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9(5), 301-319.
- 김미근·양시현·최현수(2006).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26(1), 3-35.
- 김미숙·조애정·배화옥·최현수·홍미·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선영·안선희(200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과 초기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183-197.
- 김순규(2006).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 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태·장혜성·임선숙·배현정(1995). **그림 어휘력 검사**. 서울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진이(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위험변인과 부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7-43.
- 나은숙·정익중·이봉주·김예성·김광혁(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179-186.
- 남소현·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 회지**, 38(10), 199-21.
- 문경주 · 오경자(1995).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 모-자 상호행동 관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4(1), 41-55.
- 민혜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발달매카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 박혜원 · 광금주 · 박광배(2002).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 서울 : 특수교육.
- 성민선 · 이상오 · 정무성 · 정은(1998).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복지**, 1, 179-223.
- 송신영 · 박성연(2008). 가정의 사회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19-33.
- 송연경(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및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병철(2007).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 불균등도 평가. **경제연구**, 25(2), 21-38.
- 여유진 · 이현주 · 김미곤 · 강신욱 · 김계연(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경 ·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은혜 · 김명순 · 전해정 · 이정림(2008). **삼성어린이 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 제 3차년도 결과보고서**. 서울 : 삼성복지재단.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정유미 ·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족학회지**, 36(3), 31-45.
- 홍순혜 · 이숙영(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방임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 137-169.
- 황현이(2005). 가정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제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혜원(2004). 가정빈곤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1), 219-229.
- Baydar, N., Reid, M. J., & Webster-Stratton, C. (2003). The role of mental health factors and program engagement in the effectiveness of a preventive parenting program for Head Start mothers. *Child Development*, 74(5), 1433-1453.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2.
- Conger, R. D., & Elder, G. H.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Davies, P. T., & Dumenci, L. (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Circle Oines, NM : American Guidance Service.
- Forget-Dubois, N., Dionne, G., Lemelin, J-P., Pérusse,

- D., Tremblay, R., & Boivin, M. (2009). Early child language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Child Development, 80*(3), 736-749.
- Gerard, A. B. (1994). *Parent-Child Relationship Inventory : PCRI*.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1), 70-95.
- Haden, C. V., Reese, E., & Fivush, R. (1996). Mothers' extratextual comments during storybook reading : Stylistic differences over time and across texts. *Discourse Processes, 21*, 135-169.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 (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McCubbin, H. I., & Comeau, J. K. (1987). FIRM :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In H. I. McCubbin, & A. I. Thompson (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pp.145-160).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iller, S. M. Birnbaum, A., & Durbin, D. (1990). Etiologic perspectives on depression in childhood. In M. Lewis, & S.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311-325). New York : Plenum.
- Mistry, R. S., Lowe, E. D., Benner, A. D., & Chien, N. (2008). Expanding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 Insights from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96-209.
- Pianta, R. C., Steinburg, M. S., & Rollings, K. (1995).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deflections in children's classroom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295-312.
- Walker, D., Greenwood, C., Hart, B., & Carta, J. (1994).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based on early language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Child Development, 65*(2), 606-621.

---

2009년 8월 31일 투고, 2009년 11월 8일 수정  
2009년 11월 17일 채택